



출처:

① Green Queen, "Global Mental Wellness Economy Now Worth US\$120 Billion, New Report Finds," 2020.11.13.

- www.greenqueen.com.hk/global-mental-wellness-economy-now-worth-us120-billion-new-report-finds/#:~:text=New%20research%20has%20found%20that,%2C%20self%2Dimprovement%20and%20meditation

② SCMP, "Hong Kong's mental health hits new low in survey listing Covid-19 pandemic and social turmoil as likely factors," 2020.09.09

- www.greenqueen.com.hk/hong-kong-cbd-guide-cafe-coffee-snack-bars-to-dog-treats

③ Euromonitor, "Health and Wellness in Hong Kong," 2020.02

④ HKU Study: Three fourths of HKers are suffering from depression following last year's unrest and Covid-19, 2020.08.07 - fightcovid19.hku.hk/hku-study-three-fourths-of-hk-ers-are-suffering-from-depression-following-last-years-unrest-and-covid-19

⑤ GovHK, "LCQ19: "Health food" product regulation," 2009.2.4

⑥ CFS, "Acceptable Nutrient Function Claims under the Nutrition Labelling Scheme in Hong Kong," 2008.7.24

⑦ GovHK, "Regulation of products containing cannabis," 2018.11.7

코로나19의 장기화로 “Well-Being” 시장 성장

전 세계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정신건강 경제 “Well-Being”

미국의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Global Wellness Institute)에 따르면 ‘웰빙’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중 하나이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수면, 두뇌 강화 약효 식품(brain-boosting nutraceuticals), 자기 수양(self improvement), 명상과 같은 주요 부문에서 소비자의 지출이 증가하여 전 세계 ‘멘탈 웰니스 경제(mental wellness economy)’는 1,2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분야별로는 수면 관련 시장은 495억 달러, 두뇌 활력 증진을 위한 기능성 식품 및 식물(botanical)류 관련 시장은 348억 달러, 자기 수양 시장은 336억 달러, 명상 및 마음 챙김 관련 시장이 29억 달러 규모에 이르지 식품업계는 수면 관련 시장과 두뇌 강화 약효식품 관련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대규모의 홍콩 시위에 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신 건강 중요성 대두

’19년 시위와 ’20년 코로나19로 홍콩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서 불안과 스트레스,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홍콩대학교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약 70%가 우울증을 경험했으며 40%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여가생활 부족, 운동량 감소 등 생활 방식의 급격한 변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렇듯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홍콩의 정신건강 기능 관련 식품 시장은 캡슐 형태의 건강 보조제에서 차, 음료 등 “스트레스 해소, 마음 진정, 수면 개선” 기능을 강조한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한편 유로모니터는 ’19년 뇌 건강 및 기억력 관련 기능성 식품 시장은 73.6억 홍콩 달러 규모였으며, ’24년까지 75.8억 홍콩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칸나비디올(CBD)에 주목하는 홍콩

대마의 주요 성분은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올(THC)과 환각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이다. 국내에서는 대마유래 성분인 CBD는 마약류로 구분되어 각종 규제를 받지만,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해외에서는 강력한 항산화 등 건강 효능에 주목하여 희귀 질환 치료제에서부터 미용 제품, 식음료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홍콩에서 판매되는 정신 건강 기능을 강조한 음료 제품]

			
Zenify Stress Relief HK\$27/355ml 미국산 스트레스 해소 음료	Sappe-Beauti Drink HK\$25/*2 태국산 마음 진정 음료	中科-安眠大師 HK\$25/*2 중국산 수면 개선 음료	元氣堂-安神解壓茶 HK\$18/500ml 홍콩산 정신 안정 차



▲ Lane Crawford에서 판매중인 CBD 식음료

홍콩에서는 CBD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스킨케어, 오일 제품으로 한정되어 있어 소수의 소비자만 찾던 성분이었으나 현재는 우울증·불안 증상 완화 및 항산화 효과가 주목받으면서 미용 제품뿐만 아니라 초콜릿, 젤리, 사탕, 맥주, 월병 등 식품 분야에서도 CBD를 첨가한 신제품의 출시가 활발하다. 또한, CBD 첨가 상품임을 포장 전면에 내세워 홍보하는 등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카페, 슈퍼마켓, 백화점 등 다양한 유통매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어 대중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콩 건강식품의 기능성 표기 기준

홍콩은 건강식품(Health food)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가 없으며, 식이 보충제(dietary supplements), 약효식품(nutraceuticals), 설계식품(designed foods), 기능성 식품(functional foods), 자연

건강제품(natural health products) 등을 포함하고 있다. 홍콩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건강식품은 성분(의약품, 중의약, 의약품 및 중의약 이외)에 따라 각각 “약제업 및 독약조례(Pharmacy and Poisons Ordinance(cap138))”, “중의약 조례(Chinese Medicine Ordinance(cap549))”, “공중보건 및 도시 행정 조례(Public Health and Municipal Services Ordinance (Cap 132))”의 규제를 받는다. 건강식품의 기능성 표기 관련 기준은 새로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상시 검토하고 있어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하다. CBD는 의약품으로 취급하여 “약제학 및 독약 조례”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제품을 판매 또는 유통하기 전 약제업 및 독약 위원회(Pharmacy and Poisons Board)에 등록이 필요하며 수입·제조·유통하고자 하는 경우는 라이선스 취득도 필요하다.



▲ 제품명에 기능성을 표시한 스트레스 해소차



▲ 제품의 주요 성분(GABA, 산조인 대추)과 효능(중추 신경 완화, 수면의 질 향상)을 소개하는 제품 소개

Key Point

홍콩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불안과 스트레스,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홍콩 언론은 정신 건강관리에 대한 운동,식이 요법 등을 연일 소개하고 있으며 식품업계는 정신 건강 약효 식품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특히 불안감을 줄이고 평온함을 유도하는 CBD의 효능을 특징으로 하는 제품이 속속 등장해 홍콩인들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CBD의 사용이 제한적이지만 새로운 트렌드에 관심을 가지고 전 세계 CBD 식음료 시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홍콩에서 판매되는 CBD 함유 식음료 제품]

				
CBD 젤리 Gentle Bro CBD HK\$380/통(30개)	CBD 초콜릿 Conspiracy Chocolate HK\$150/50g	CBD 스낵바 Suphia's HK\$49/개	CBD 월병 found HK\$398/1통(12개)	CBD 맥주 Young Master HK\$42/330ml